

### 학습목표

1.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확인 할 수 있다.
2. 매체 문제에서 인위적인 표시를 활용 할 수 있다.
3. 매체 문제에서 대화의 특징을 활용 할 수 있다.

# Theme 8. 언매) 지문이 있는 매체 문제 해결

출처: 2023학년도 9월 모평 시험 43~45번 문제

# 해설자료 구성과 활용 하는 방법

## [해설 자료]

### 1. 지문

<p>[1 문단]</p> <p>제도의 선택에 대한 설명에는, 합리적인 주체인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제도를 선택한다고 보는 효율성 시각과 이데올로기·경로의존성·역 과정 등으로 인해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p> <p>제도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관점은 두 가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효율성 시각</li><li>- 효율적 제도의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li></ul>
--

#### 설명:

- 두꺼운 두 줄로 사이에 있는 내용은 지문입니다.
- 지문 아래에 해당 문장에 대한 해설을 작성했습니다.

#### To-Do List:

- 지문 읽으시고, 아래 해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해당 지문이 이해가 안가거나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면, 별표나 나름대로의 표시하고, 나중에 복습하시면 됩니다.

### 2. 단어 확인

<p><b>WORD 1</b> 직관-적 直觀的 이라는 것</p> <p>直 곧을 직 觀 불 관 의 과녁 적</p> <p>1.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처지 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p> <p><b>WORD 2</b> 호소-력 呼訴力 이라는 것</p> <p>呼 부를 호 訴 호소할 소 힘 력(역)</p> <p>1. 강한 인상을 주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2. 호소(呼訴)하여 동경(同情)을 불러일으키는</p>
--

#### 설명:

- 평소에 쉽게 지나가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의 뜻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To-Do List:

- 해당 단어의 뜻을 명확히 몰랐다면, 꼭 뜻을 확인합시다.
- 나중에 공부하면서 지나가는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나름대로 검색해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3. 추가적인 학습 포인트

<p><b>CHECK 2</b> OR이 있는 문장구조(복문의 함경)</p> <p>OR구조로 이어질 때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li><li>-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OR을 통한 문장구조)</li></ul> <p>사과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중력으로 설명 할 수 있다.</p> <p>해당 네모를 친 표현에서 실제로 생략되는 문장 '지는 이유는 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며, 이</p>
---

#### 설명:

- 주어진 문장에서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 To-Do List:

- 학습 포인트를 읽고, 지문에서 해당 포인트를 직접 확인합시다.
- 복습하신다면, 꼭 별표나 자신만의 표시를 합시다.

### 4. 학습목표

<p>학습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익숙해서 쉽게 지나가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li><li><input type="checkbox"/> 익숙한 문장구조에서 생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li><li><input type="checkbox"/> 지문에서 그래프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프의 특징</li><li><input type="checkbox"/> 개념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구분 기준을 확인할 수</li><li><input type="checkbox"/> 정성적 개념과 정량적 개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li></ul>
---

#### 설명:

- 처음에 정리된 학습목표들은 다시 확인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To-Do List:

- 학습목표를 확인하시면서 앞에 네모 칸에 체크합시다
- 학습목표 아래에 네모 칸에, 해당 학습을 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깨달은 점들을 정리합시다.

[43~45] (가)는 교내 방송의 일부이고, (나)는 (가)를 들은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는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지문 분석]

(가)

진행자 : 방송을 듣고 계신 ○○고 여러분, 매주 수요일 마지막 순서는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어제까지 많은 사연이 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잔잔한 배경 음악) “3학년 1반 이민지입니다. 제가 며칠 전 운동장에서 다쳤을 때 우리 반 지혜가 응급 처치를 해 줬어요. 우리 반에서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곧 전학을 가요.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담아 □□의 노래 <다시 만날 우리들>을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신청곡 들려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해당 문제가 매체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자.

우선 어떤 매체를 선택했는가? ○○고 교내 방송이다.

나온 인물을 정리한다면

- 진행자
- 이민지: □□의 노래 <다시 만날 우리들>을 신청함
- 지혜: 민지를 도와줬으며, 곧 전학을 감

### CHECK 1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

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은 전달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 지식과 정보
- 교훈
- 감정적인 측면

이런 무언가들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매체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목적과 수단 중 무엇이 우선시되는가에 대해서 말한다면, 목적이 우선시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은 ‘언어와 매체’다. 매체 자체를 다루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디어학부에서 배우는 매체의 특성들을 전문적으로 분류하며 분석하면 좋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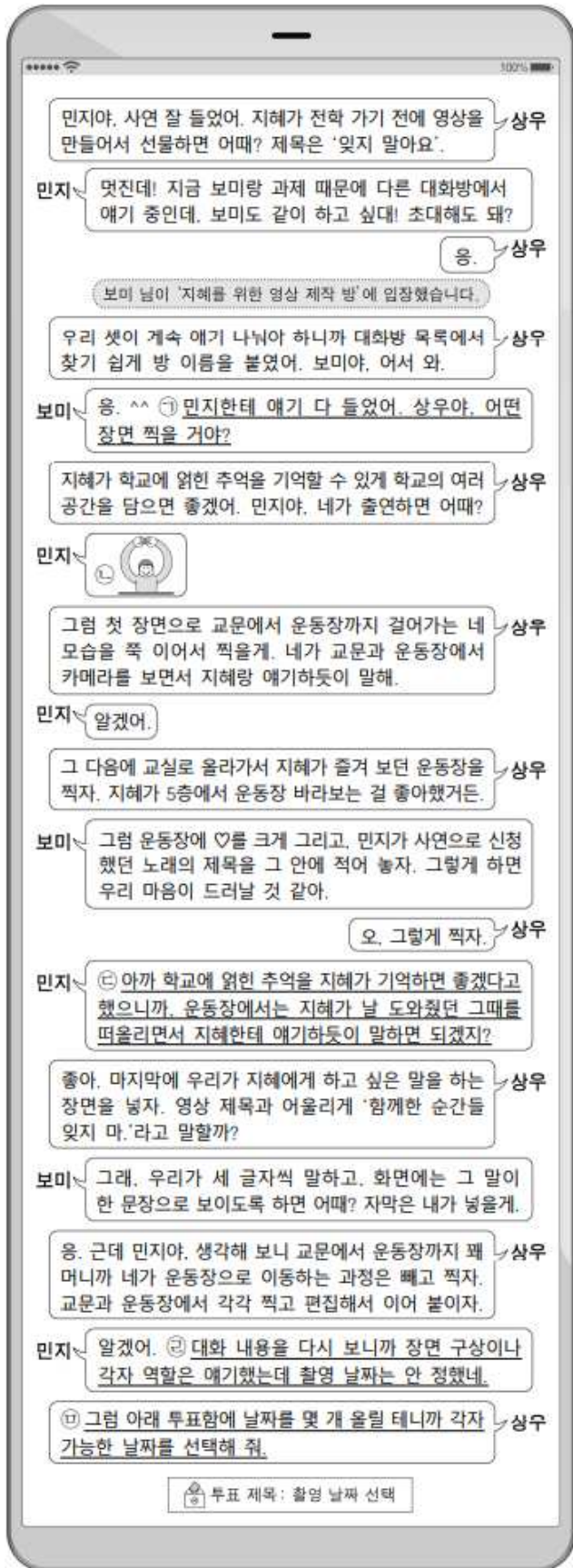
해당 과목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이 세부과목이 더욱 세분화된다면 미디어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까지 공부해야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체의 일반적인 제반사항 정도만이 시험에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상식에서 매체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그럼 해당 과목의 문제를 풀 때 필요한 행동강령 혹은 가이드라인의 시작점은, 지문을 읽으면서 ‘어떤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체를 활용한 것, 그 이전에 매체를 선택이 우선되기 때문이고, 이후 선택된 매체를 우리의 상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나)



매체: 핸드폰 (아마 카톡?)

나온 인물을 정리하자.

- 상우
- 민지: (가)에 나온 인물
- 보미

목적: 떠나가는 지혜에게 줄 영상 선물 만들기

- ㉠ 이미 들었다는 것을 말함
- ㉡ 이모티콘
- ㉢ 지혜가 도와준 사실 활용
- ㉣ 장면구상은 충분, 촬영날짜 정하지 않음
- ㉤ 투표를 통해, 촬영날짜를 선택하자

CHECK 2 '인위적인 표시'와 대처

해당 지문을 읽으면서

실제 매체를 사용하는 환경과 비교해봤을 때, ㉠㉡㉢과 같은 원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인위적인 것이다.

대놓고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표시를 확인하며 미리 문제로 나올만한 내용이나 형식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한편,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인위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정보처리 하면서 지문을 읽는다면 지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인위적인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징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시각화하여 후에 다른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수도 있다.

43.① 44.③ 45.①

[43번 문제]

(가), (나)에 드러나 있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가)의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라는 말을 고려할 때, (가)에서는 교내 방송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화집단의 대상들이 이미 특정되어 있다.

③ (가)에서는 (나)와 달리 대화 목적에 따라 또 다른 온라인 대화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가)와 (나)가 뒤바뀐 것이다.

④ (나)에서는 (가)와 달리 음성 언어에 음향을 결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가)와 (나)가 뒤바뀐 것이다.

⑤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고 있다

(가)와 (나)에서 모두 정보 생산자가 정보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정보 제시 순서를 바꾸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44번 문제]

㉠ ~ ㉣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새롭게 대화에 참여한 '보미'는 공유된 맥락을 기반으로 '상우'에게 질문하고 있다.

㉠의 '민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라는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새롭게 대화에 참여한 '보미'는 '민지'를 통해 대화 맥락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 : 동의의 뜻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여 '상우'의 제안을 수락하고 있다.

이모티콘으로 O자를 만들어서 동의한다.

③ ㉢ : '상우'의 이전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 하면서 영상 제작에 관한 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에서 '아까 학교에 얽힌 추억을 지혜가 기억하면 좋겠다고 했으니까'는 '상우'의 이전 발화 중 '지혜가 학교에 얽힌 추억을 기억할 수 있게'를 재진술한 것이다. '민지'는 이를 바탕으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라는 '상우'의 의견에 대해 '운동장에서는 지혜가 날 도와줬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혜에게 얘기하듯이 말하면 되겠지?'와 같이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우'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 : 진행된 대화 내용을 점검하여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촬영날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⑤ ㉣ :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여 촬영 날짜를 선택하기 위한 의사 결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투표기능을 활용하여, 촬영날짜를 정하려고 한다.

[45번 문제]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나)를 기준으로 선지의 참 거짓을 판단해야 한다.

영상 제작 계획	장면 스케치
①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 지혜가 여러 공간에 얽힌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연출해야겠어.	
② 학교 공간을 촬영할 때, 민지가 지혜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드러내야겠어.	

① (나)에서는 ‘교문에서 운동장까지 꽤 머니까 ~ 교문과 운동장에서 각각 찍고 편집해서 이어 붙이자.’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민지’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교문에서부터 운동장까지 끊지 않고 촬영하여’는 (나)의 대화 내용을 반영한 영상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네가 교문과 운동장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지혜랑 얘기하듯이 말해.’라는 ‘상우’의 제안에 대하여 ‘민지’가 동의하고 있다. ②는 이러한 대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지혜가 바라보던 운동장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교실에서 촬영해야겠어.	
④ 운동장에 그린 하트 모양의 그림에 ‘다시 만날 우리들’이라는 글자가 적힌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겠어.	

③ (나)에서 ‘상우’의 발화 중 ‘그 다음에 교실로 올라가서 지혜가 즐겨 보던 운동장을 찍자.’라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나)에서 ‘보미’의 발화 중 ‘그럼 운동장에 ♡를 크게 그리고 ~ 우리 마음이 드러날 것 같아.’와 (가)에서 ‘민지’가 신청한 노래 제목 ‘다시 만날 우리들’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우리가 다 같이 등장해서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나눠서 말한 내용이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게 자막을 삽입해야겠어.	<p>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p>
--	----------------------

⑤ (나)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지혜에게 ~ ‘함께한 순간들 잊지 마.’라고 말할까?’라는 ‘상우’의 발화와 ‘그래, 우리가 세 글자씩 말하고 ~ 자막은 내가 넣을게.’라는 ‘보미’의 발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CHECK 3 대화의 특징

대화는 언제나 뒤집어질 수 있다. 이미 완성된 계획표가 아닌 이상,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내기 위해서 기존에 정해진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

이번 44번 문제 1번 선지도 이렇게 뒤집어진 사안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대화의 특징을 통해 문제가 설정되면,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